

한반도 통일 환경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의 인식과 통일교육

조소* · 이기완**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45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 환경 인식에 대한 설문 분석을 통해 글로벌 통일교육의 한계와 과제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자료에 대한 기술통계와 서술형 응답 범주화에 관한 분석을 통해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중국인 유학생은 통일의 장기적 필요성에 중간 수준의 공감을 보였지만, 단기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둘째, 통일 문제를 남북한 민족 문제로 간주하기보다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국제정치적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한국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행 통일교육이 중국인 유학생의 언어·문화적 배경과 정치적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국인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글로벌 통일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이 소규모 비확률 표본에 기초한 연구라는 한계는 있지만, 중국인 유학생을 통일교육의 새로운 학습자로 설정하고 통일교육의 내용과 교육 방법의 재구성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인 유학생의 정보환경과 통일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한반도 인식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주제어 : 중국인 유학생, 통일교육, 통일 인식, 정보환경, 국제정치적 시각

* 동아대학교 강사 : 주저자

** 국립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교신저자

I. 서론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대학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집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단순히 교육 수요의 확대를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정치적 의제(agenda)를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에게 어떤 내용과 교육 방법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교육적 과제를 제기한다.

특히 한반도 분단과 통일 문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는 대표적 과제다. 통일은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 경험, 민족 정체성, 안보 환경, 대외관계 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전쟁, 분단 과정, 남북 관계 변화 등과 같은 역사적·사회적 경험을 한국인 학습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기존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기존 통일교육은 분단 현실, 안보-통일 문제, 통일 환경과 통일 공감대 형성 문제 등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어 왔다.¹⁾ 이러한 교육 내용은 분단 체제와 남북 관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높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교육 대상의 문화적·언어적·정치적 배경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통일교육의 내용과 학습 방법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체류하면서 한국의 역사, 정치,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어 한반도 분단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의 통일 인식에 관한 연구 필요성은 단지 이들의 규모에만 있지 않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습득한 정보와 자국에서 형성된 기존의 지식 및 미디어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적·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인 만큼, 중국인 유학생은 통일 문제를 남북한 국내 문제로만 간주하기보다 동아시아 정세와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²⁾

1) 통일부. 2024. 『2024 통일교육 기본계획』,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3-4.

2) 정호경. 2023.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이기완 외.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창원: 글서림, 157-197.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통일·북한에 대한 인식, 정보 습득 경로³⁾, 교육 경험과 수요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외국인 유학생을 남북한의 주요 의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자신의 정보환경과 배경지식 속에서 해석하는 인식 주체로 파악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분석은 학습자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데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통일교육에 관한 기존 연구는 통일교육의 목적과 내용,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의 관계, 내국인 학습자의 통일 인식 변화 등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통일교육의 학문적 성격과 교육적 방향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교육 대상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역사적 배경과 정보환경, 언어적 조건, 정치적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 통일교육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 사회 적응, 대학 생활 만족도, 문화 적응 스트레스, 언어 능력,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경험과 정착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역사적 의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특정 국적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통일 인식, 정보 습득 경로, 교육 경험 및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통일에 대한 태도나 교육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외국인 유학생의 통일 인식을 분석할 때 단순히 통일에 대한 찬반 태도를 측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외국인 유학생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정보환경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역사적·정치적 의제를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정보 경로를 통해 통일·북한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지, 한반도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이해하는지, 기존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교육 방법을 요구하는지 등을 다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북한·통일에 대한 인식과 그 시각, 관련 정보의 습득 경로, 통일교육 경험과 교육 수요 등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통일 문제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동시에 국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제공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 확보 방안을 모색

3) 이기완. 2023. “객관적 한반도 정세 인식 형성의 한계와 과제”, 『한국보훈논총』, 제22권 제3호, 5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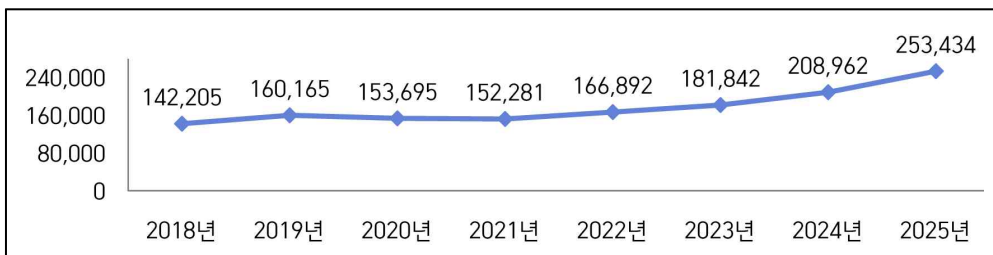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통일연구원이 실시하는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에서 중국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중국의 북한·통일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인(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통일 문제를 국제정치적 문제와 관련지어 이해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이 북한에 대한 인식과 시각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며 통일·북한 관련 정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습득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첫째로, 중국인 유학생은 한반도 분단과 통일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가?, 둘째로, 이러한 인식은 어떠한 정보 경로와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가?, 셋째로, 기존 통일교육은 중국인 유학생의 한반도 인식과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가?, 넷째로, 중국인 유학생을 고려한 통일교육은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는가? 등의 문제이다.

II.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 검토

1.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와 통일교육의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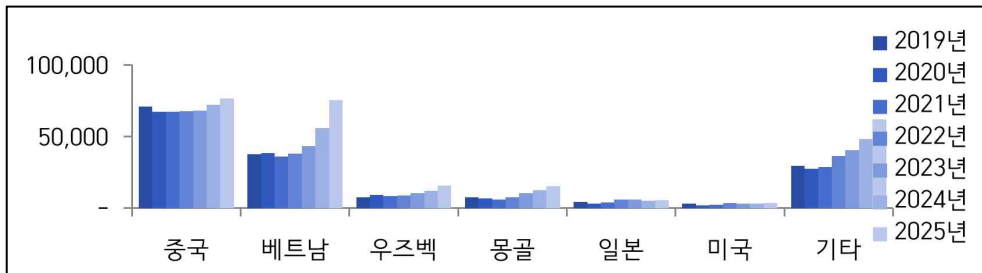
최근,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8년 약 14만 명 수준에서 2025년 약 2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출처: “2025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www.moe.go.kr> (검색일: 2026.3.2.).

<그림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추이(2025.4.1. 기준, 단위: 명)

또한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베트남 등 다른 국가 출신 유학생의 증가로 중국인 유학생의 상대적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중국인 유학생 집단은 여전히 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⁴⁾



출처: “2025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www.moe.go.kr> (검색일: 2026.3.2.).

<그림 2> 주요 국적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한국 대학의 교육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사회에 체류하면서 언어, 문화, 제도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역사적·정치적 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한반도 분단과 통일 문제 역시 이들이 한국 생활과 교육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대표적 학습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은 분단과 남북 관계에 관한 배경지식과 경험이 한국인 학습자와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그 접근 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통일교육의 대상과 교육 방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해 준다. 기존 통일교육은 주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분단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균형 잡힌 안보-통일관의 정립과 통일 공감대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⁵⁾ 이러한 교육 내용은 우리 사회 내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 향상에는 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교육 대상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확장될 경우, 내국인 학습자를 전제로 구성된 교육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커다란 한계가 있었다.

통일교육은 한국전쟁, 분단의 형성 과정, 남북 관계 변화, 북한 이해 등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맥락을 전제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상기

4) 법무부. 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정보』, 서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

5) 박형빈. 2024. “통일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재고: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제21권 제2호, 36.

(上記)의 배경지식이 거의 없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교육 내용이 매우 낮설고 난해하며 단편적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외국인 유학생을 통일교육의 주변적 대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를 매개할 수 있는 학습 주체로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⁶⁾ 또한 문화적 배경과 정치적 경험이 다른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비교·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통일교육이 강의 위주의 전달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학생들은 교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단지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이렇게 진행되는 통일교육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한반도 문제를 자신의 배경지식과 정보환경에서 재해석하기는커녕 통일교육을 재미없고 지루한 과정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도 대학 구성원의 변화,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를 반영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통일 인식과 국제정치적 시각

통일에 대한 인식은 통일을 둘러싼 찬성 또는 반대라는 단일한 태도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도 통일 인식은 필요성, 실현 가능성, 시기, 방식,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다층적 내용으로 다루어져 왔다.⁷⁾ 개인이 특정 정치적 쟁점을 이해할 때, 그 쟁점을 어떤 성격의 문제로 규정하는지, 어떤 원인과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지, 어떤 해결 방향을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에 관한 인지적 기준이 작동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인식은 통일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통일 문제의 성격, 북한에 대한 인식,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이해 등 복수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표출된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남북 간 민족 문제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동아시아 정세와 주변국 관계가 결부된 국제 문제로 이해하는지에 주목한다. 여기서 국제정치적 시각은 한반도 통일을 남북한 관계만이 아니라 북·중 관계, 한·중 관계, 한·미 관계, 미·중 전략경쟁, 동아시아 안보 질서 등과 연계해 이해하는 방식이다.⁸⁾

이러한 시각은 개인이 성장 과정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 온 정치적 경험과 태

6) 조소. 2026. “외국인 유학생과 통일교육”, 『지역형 통일교육의 현황과 미래』, 부산: 샤인텔.

7) 김세현·김진환. 2025. “한국 시민의 통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 연구: 통일의식조사 변수의 유의성과 영향력 검증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29권 제2호, 49.

8) 이기완. 2015. “통일을 둘러싼 갈등의 삼층 구조”, 『국제정치연구』, 제18집 제2호, 99-103.

도의 영향을 받는다. 정치사회화 논의에 따르면, 개인의 정치적 인식은 가족, 학교, 미디어, 또래 집단 등 다양한 사회화 기제를 통해 형성된다.⁹⁾ 또한 개인이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진입할 때, 기존의 정치적 인식이 수정되거나 재구성되는 재사회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에서 형성된 정치적 지식과 미디어 경험을 지닌 상태에서 한국 사회에 진입하고, 한국 내 교육과 생활을 통해 새로운 정보환경에 노출된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 인식은 출신국의 정보환경과 한국 사회의 정보환경이 교차하는 조건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외국인 유학생보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에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중국은 역사적·지정학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한반도 정세는 중국의 대외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은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단순히 민족 문제로만 이해하기보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관련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중국어권 정보, 자국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 한국 내 교육 경험 등이 통일 인식 형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통일 인식 조사에서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률이 줄어드는 반면, 평화적 방식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¹⁰⁾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을 민족적 당위보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통일 인식이 단일한 태도가 아니라 필요성, 가능성, 비용과 편익, 안보 인식, 민족 정체성 등 여러 차원이 서로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들은 대체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와 같은 분단 경험 없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통일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통일교육에 관한 기존 연구는 통일교육의 목적과 학문적 성격, 평화교육·민주시민교육·다문화교육과의 관계, 내국인 학습자의 통일 인식 변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러한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이 단순히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분단 현실에 대한 이해, 균형 잡힌 안보-통일관의 확립,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교육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통일교

9) 박정서, 2012. “정치사회화 이론에 근거한 탈북자 시민성 연구와 시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제 51권 제2호, 92-93.

10) 이상신, 2025.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서울: 통일연구원, 7.

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대체로 내국인 학습자를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업 적응, 문화 적응, 생활 만족도, 언어 능력,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경험과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역사적 의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한반도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인식, 정보 습득 경로, 교육 경험과 수요 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한 연구로는 윤향희·전세경(2022)의 연구가 있다.¹¹⁾ 해당 연구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인식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참여자는 한국 입국 이전에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사실이나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한국 생활 과정에서도 남북 관계에 관한 체계적 교육 경험이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소수의 면담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특정 국적이나 학습자 집단의 인식과 교육 수요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통일·북한에 대한 인식, 정보 습득 경로, 통일교육 경험과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이해하는지, 기존 통일교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요구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통일교육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인 학습자의 정보환경과 국제정치적 시각을 고려한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 연구와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11) 윤향희·전세경, 2022. “국내체류 외국인의 통일교육 필요성 검토”, 『인문사회21』, 제13권 제6호, 5046.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인 유학생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며, 한반도 통일 문제를 한국 사회 내부의 시각뿐 아니라 자국의 정보환경과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의 통일 인식과 통일교육 수요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연구 대상이다.

설문조사는 총 4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는 한국의 대전 이남에 소재한 대학의 학부,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 유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 가운데에는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 전공 및 학위과정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포함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비확률적 표집에 기초한 소규모 설문조사이므로 분석 결과를 전체 중국인 유학생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수의 확대와 지역적 분포 수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Google Form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조사는 2026년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SNS, 학교 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되었으며,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은 최소화하였다. 또한 설문 시작 전에 수집된 자료가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는 언제든지 설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본 조사는 자발적 응답에 기초한 온라인 설문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통일·북한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있는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표본의 자기 선택 편향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하였다.

3. 설문 문항 및 변수 구성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반도 통일 인식과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 및 수요 등을 분석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은 크게 통일 인식, 북한 및 분단 인식, 정보 습득 경로, 통일교육 경험 및 평가, 통일교육 수요, 서술형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 그렇지 않다, 3점 : 보통이다, 4점 : 그렇다, 5점 : 매우 그렇다 등으로 구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 문항 및 변수 구성

영역	주요 문항	척도
통일 인식	통일 필요성, 통일 실현 가능성, 통일의 국제적 성격	5점 리커트
북한 및 분단 인식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한 사회 정보 보유	5점 리커트
정보 습득 경로	SNS·온라인 매체 이용, 정보 편향성 인식, 중국어 정보 의존	5점 리커트
통일교육 경험 및 평가	통일교육 참여 경험, 외국인 관점 반영, 이해 용이성	5점 리커트
통일교육 수요	맞춤형 통일교육 필요성, 국제정치 연계 설명 필요성	5점 리커트
서술형 문항	필요한 통일교육 내용과 방식	자유 응답

출처: 저자 작성.

첫째로, 통일 인식 관련 문항이다. 통일 인식은 통일의 필요성, 통일 실현 가능성, 통일 문제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는지, 가까운 시일 내 실현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는지, 또는 국제정치적 시각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로, 북한 및 분단 인식 관련 문항이다. 북한 및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은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 보유 정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느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로, 정보 습득 관련 문항이다. 정보 습득 경로는 SNS, 유튜브, 온라인 매체를 통해 통일·북한 관련 정보 접근 정도와 정보의 편향성에 대한 인식, 중국어 정보 및 중국 언

론에 대한 의존 정도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를 어떠한 환경에서 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넷째로, 통일교육 경험 및 평가와 관련한 문항이다. 통일교육 경험 및 평가는 통일교육 참여 경험, 교육 내용에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교육 내용의 이해 용이성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통일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평가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로, 통일교육 수요 관련 문항이다. 통일교육 수요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통일 문제를 국제정치 및 동아시아 정세와 연계하여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통일교육의 내용과 교육 방법에 어떠한 보완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폐쇄형 문항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서술형 문항을 함께 구성하였다. 서술형 문항은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통일교육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나 방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육 내용, 설명 방식, 참여 형태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서술형 응답은 정량적 결과를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견과 핵심 표현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하였다. 다만, 표본 수가 45명으로 제한적이므로 교차분석 결과는 집단 간 차이를 일반화하거나 통계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결과라기보다 응답자 내부의 경향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해석하였다. 또한 서술형 질문은 응답을 검토한 후 주된 내용을 역사적 맥락에 대한 요구, 국제정치 및 비교 관점에 대한 요구, 참여형 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요구, 외국인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서술형 응답 분석은 엄밀한 질적 연구 설계에 따른 분석이라기보다 정량적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탐색적 범주화 분석으로 활용하였다. 즉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반도 통일 문제와 통일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IV. 분석 결과

여기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통일 인식, 북한 및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 정보 습득 경로, 통일교육 경험과 평가, 통일교육 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서술형 응답은 반복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본 연구가 중국인 유학생 4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중국인 유학생 전체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조사 응답자 집단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통일 인식

〈표 2〉는 한반도 통일 인식에 대한 응답자의 특징이다. “통일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04점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강한 수준의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통일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기 어렵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8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일의 장기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공감감이 존재하지만,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문항은 “통일은 국제 문제다.”로 4.42점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는 응답자들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남북한 국내 문제로 간주하기보다 국제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 국제질서와 이 지역에 대한 자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통일 인식에 대한 문항 분석 결과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1. 통일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45	3.04	1.31
2. 통일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기 어렵다.	45	3.89	1.11
3. 통일은 국제 문제다.	45	4.42	0.84

출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통일 문제의 국제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

국인 유학생 대상 통일교육에서 통일을 단순히 한반도 민족 내부의 문제로 설명하기보다 주변국 국제정치의 동학과 통일 문제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2. 북한 및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

〈표 3〉은 북한 및 분단 현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29점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일정 수준에서 북한을 군사적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평균값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을 절대적 또는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한다기보다 한반도 정세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2.67점으로 매우 낮다. 이는 응답자들이 북한 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 관련 정보가 군사적 긴장이나 정치적 갈등 중심으로 전달될 경우, 북한 사회의 구조, 주민 생활, 경제 현실 등의 이해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표 3〉 북한 및 분단 현실의 인식에 대한 문항 분석 결과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4. 북한은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다.	45	3.29	1.31
5. 북한 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가지고 있다.	45	2.67	1.1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이 북한을 일정 정도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통일교육에서 북한을 안보적 대상으로 다루기보다 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 남북 관계의 변화 등을 함께 설명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의 문항은 북한 인식의 일부 측면만을 측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중국인 유학생 전체의 북한 인식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북한 체제, 주민, 경제, 북핵 문제, 남북 관계 변화 등에 대한 인식을 보다 세분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정보 경로와 인식 영향

〈표 4〉는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 습득 경로와 정보환경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제시한 것이다. “온라인 매체 중심 정보 습득” 문항의 평균은 3.71점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를 온라인 매체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접하는 경향이 있음

을 보여준다. “정보 편향 경험” 문항의 평균은 3.87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응답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매체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의 출처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 정보 의존” 문항의 평균은 3.60점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한국어 기반 정보에 더해, 중국어 기반 정보와 중국 언론을 통해서도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를 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에 체류하면서도 중국어권 정보환경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인 유학생의 통일 환경 인식은 한국 내 정보환경뿐만 아니라 자국의 정보환경이 교차하는 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정보 경로와 인식 영향에 대한 문항 분석 결과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6. 온라인 매체 중심 정보 습득	45	3.71	1.10
7. 정보 편향 경험	45	3.87	0.89
8. 중국 정보 의존	45	3.60	1.2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인 유학생들은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를 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접하며, 중국어 기반 정보에 대한 의존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통일교육에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정보 출처와 관점의 차이를 비교하고, 관련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정보 이용과 통일 인식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환경이 통일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4. 통일교육의 한계

〈표 5〉는 통일교육 경험과 교육 방식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보여준다. “통일교육 참여 경험” 문항의 평균은 3.11점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통일교육을 접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참여 경험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통일교육의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 반영” 문항의 평균은 2.78점이다. 이는 현행 통일교육이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적·문화적 배경이나 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현행 통일교육이 내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성된 한계에 기인한다. “통일교육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된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2.7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교육 내용과

전달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통일교육에서 사용되는 용어, 역사적 배경, 정치적 맥락 등이 한국어 능력과 유학생의 지식수준을 고려한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5〉 통일교육의 한계에 대한 문항 분석 결과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9. 통일교육 참여 경험	45	3.11	1.56
10. 외국인 관점 반영	45	2.78	1.28
11. 이해하기 쉬운 교육	45	2.73	1.2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은 통일교육 참여 경험에서는 중간 수준의 응답을 보였지만, 외국인 관점의 반영 정도와 이해 용이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통일교육에서 다국어 자료, 핵심 개념에 대한 기초 설명, 시각 자료와 사례 중심 접근 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만 이 결과를 전체 통일교육의 일반적 한계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보여주는 탐색적 자료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5. 맞춤형 통일교육 수요

〈표 6〉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일교육에 대한 응답자들의 수요를 보여준다. “맞춤형 통일교육 필요성” 문항의 평균은 3.42점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통일 문제와 국제정치 연계 필요성” 문항의 평균은 4.2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통일 문제를 남북한 내부의 문제로만 설명하기보다 주변국 관계와 동아시아 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통일은 국제 문제다.”라는 문항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표 6〉 맞춤형 통일교육 수요에 대한 문항 분석 결과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12. 맞춤형 통일교육 필요성	45	3.42	1.27
13. 국제정치 연계 필요성	45	4.20	0.9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통일교육이 학습자의 배경지식, 언어 수준, 정보환경, 국제정치적 인식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통일 문제를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통일교육 역시 남북 관계 위주의 설명에서 탈피하여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 남북 관계에 대한 시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6. 서술형 응답 분석

서술형 문항인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통일교육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설명 요구다. 응답자들은 한반도의 분단 과정과 통일의 배경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반도가 어떻게 분단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의미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응답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통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분단 과정, 한국전쟁, 남북 관계의 전개 과정 등과 같은 기초적인 역사 이해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국제정치 및 비교 관점에 대한 요구다. 응답자들은 통일 문제를 국제정치와 연결하여 설명하거나 다른 국가의 경험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정치와 함께 설명해 주면 좋겠다.”, “중국의 시각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연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응답자들이 한반도 통일을 한국 내부의 문제로만 이해하기보다 국제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통일교육은 남북 관계에 더해 한반도와 주변국 정세, 그리고 국제정치적 쟁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참여형·사례 중심 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다. 응답자들은 토론식 수업, 사례 중심 설명, 영상 콘텐츠 활용, 이해하기 쉬운 설명 방법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통일교육에서 일방적인 정보 전달보다 구체적 사례와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응답만으로 기존 통일교육 전체가 강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방법론의 재검토가 요구됨을 말해 준다.

넷째로, 객관성 및 중립성에 대한 요구다. 일부 응답자는 통일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일방적 접근

은 적절하지 않다.”, “강한 반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응답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통일교육에서 특정 가치나 정책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분단과 통일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과 주요 쟁점을 균형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다섯째로, 외국인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다. 응답자들은 “중국어 설명 필요”, “외국인 맞춤형 교육 필요”, “배경지식 고려 필요” 등을 언급하였다. 이는 현행 통일교육이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 유학생의 역사, 문화, 언어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인 유학생은 통일교육을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규범적 메시지의 전달을 넘어 한반도 문제를 역사적·국제정치적 맥락 속에서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인 학습자와 동일한 역사적 경험과 배경지식을 공유하지 않아 학습자의 배경과 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즉 이러한 점은 향후 통일교육이 내국인 중심의 교육을 넘어 국제 학습자를 고려한 교육 방법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정보 습득 경로, 통일교육 경험 및 교육 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에서 정치적 이유로 누락 되는 중국인의 통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의 통일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통일교육의 보완점을 제시하면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을 고려한 맞춤형 통일교육 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인 학습자와 다른 언어적·문화적 배경과 사전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자료는 한국전쟁, 분단의 형성 과정, 남북 관계의 변화, 통일 논의의 주요 개념 등을 기초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국어 자료, 시각 자료, 용어 설명 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전공 배경에 따라 교육 내용을 차별화한다면, 이해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정치적 시각과 연계하여 통일교육의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 문제를 분단과 통일의 역사적 맥락뿐 아니라 북·중 관계와 한·중 관계에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다룰 때, 특정 국가의 입장이나 정책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요 쟁점과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비교 사례를 활용한 교육 방법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자신에게 익숙한 역사적·사회적 경험과의 비교 과정을 통해 새로운 주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과 통일 문제를 설명할 때, 독일 통일, 베트남의 분단과 통합, 냉전기 국제질서 등 관련 사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상 비교는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만 국가별 분단의 형성 배경, 국제환경, 체제 조건, 통합 과정 등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한 동일시 또는 직접적 적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참여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교수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서술형 응답에서는 토론식 수업, 사례 중심 설명, 영상 콘텐츠 활용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통일교육에서 일방적 강의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강의식 설명과 함께 토론, 사례분석, 영상자료, 소규모 프로젝트, 비교 발표 등을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다. 특히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다른 국가 출신 학습자와 비교·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 4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을 포함한 비교 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중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러시아, 몽골, 동유럽 국가, 베트남, 일본 등 주요 유학생 집단을 함께 분석한다면, 국적별 정보환경과 정치적 배경에 따라 한반도 통일 인식에 어떤 공통점과 차별성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류 기간, 전공, 한국어 능력, 통일교육 경험, 미디어 이용 양식 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세현·김진환. 2025. “한국 시민의 통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 연구: 통일의식조사 변수의 유의성과 영향력 검증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29권 제2호.
- 박정서. 2012. “정치사회화 이론에 근거한 탈북자 시민성 연구와 시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제

51권 제2호.

- 박형빈. 2024. “통일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재고: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제21권 제2호.
- 법무부. 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정보』, 서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윤향희·전세경. 2022. “국내체류 외국인의 통일교육 필요성 검토”, 『인문사회 21』, 제13권 제6호.
- 이기완. 2015. “통일을 둘러싼 갈등의 삼층 구조”, 『국제정치연구』, 제18집 제2호.
- 이기완. 2023. “객관적 한반도 정세 인식 형성의 한계와 과제”, 『한국보훈논총』, 제22권 제3호.
- 이상신. 2025.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서울: 통일연구원.
- 정호경. 2023.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이기완 외.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창원: 글서림.
- 조소. 2026. “외국인 유학생과 통일교육”, 『지역형 통일교육의 현황과 미래』, 부산: 샤인텔.
- 통일부. 2024. 『2024 통일교육 기본계획』,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 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www.moe.go.kr> (검색일: 2026.3.2.).

【 Abstract 】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Perceptions
of the Unification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mplications for Unification Education

Zhao, Xiao · Lee, Kiwan

This paper analyzes the limitations of and challenges for global 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a survey analysis of how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perceive the unification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Drawing on an online survey of 45 Chinese students enrolled in Korean universities, the study employs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categorical analysis of open-ended responses, yielding three main findings.

First, respondents expressed a moderate level of agreement on the long-term necessity of unification while assessing its short-term feasibility as low. Second, they tended to interpret the unification issue not as an inter-Korean national question but from an international-political perspective closely tied to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Third, respondents evaluated unification education currently offered at Korean universities as insufficiently reflecting the linguistic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political viewpoints of Chinese students, underscoring the need to move beyond domestically oriented approaches and to strengthen global unification education aimed at building international support for Korean unification.

Although limited by its small non-probability sampl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ositions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s new learners of unification education and raises the need to restructure both its content and its pedagogical methods. Given China's indirect yet substantial stake in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information environment and Chinese students' perceptions of unification can provide an important basis for designing more effective global unification education.

Key Words :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perception,
information environment, international political perspective

